

■ 2025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 전통예술 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전통예술 분야 지원심의
- 회의일시 : (1차) 2025년 1월 14일(화) 10:00~12:00
(2차) 2025년 2월 6일(목) 10:00~12: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오영주, 원일, 전지영, 정성진, 정효성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은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자격이 기존 3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전통예술 분야는 총 102건 지원신청 사업이 접수된 가운데 행정결격을 제외한 1차 심의대상은 총 100건이었고, 서류심의 방식으로 심의위원들의 개별 채점 후 논의를 통해 우선 2차 심의대상으로 3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2차 심의에서는 심의위원 간의 의견 교환과 상호 소통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1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개인과 팀 수치를 안배하여 진행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청년예술가의 특성상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은 신청자가 다수인 상태에서 서류만으로 심의해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심의 방향성에 관한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의기준은 1차 심의에서는 '신청자의 사업 수행역량', 2차 심의는 '작품 기대성'과 '사업계획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는데, 각 기준에 대한 개념과 범주가 넓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모두 어떤 측면에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서류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보이고 설득해야 하는 신청자들에게도 이 고민은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그만큼 이번 심의대상의 사업 내용과 구성 방향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전통예술 안에서 완성도를 높이거나 하는 내용부터 다원예술적인(기술융복합 등) 여러 요소로 무대를 풍성하게 하려는 내용, 연주자로서 음악적 깊이와 연주능력 심화에 중점을 둔 계획부터 연주 외 연출 및 기획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까지 내용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의견은 사업계획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계획보다는 명료한 문제의식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신청자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계획과 포부는 다르며, 포부는 '하고자 한다'로 설명할 수 있지만 계획은 구체적인 작품 및 무대구성, 그에 따른 예산계획 및 사업에 관한 설득 논리와 예술적 문제의식 그리고 향후 성장계획·파급효과에 관한 고민까지 두루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 작품의 단순 재연이거나 관성을 반복하는 식으로 참신함이 다소 부족한 계획보

다는 그동안 작게나마 시도를 계속해 온 계획으로 예술적 도전 정신이 보이는 경우를 더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사업 내용과 무관한 영상을 제출하거나 예술적 맥락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술적 요소(AI나 미디어아트 등)만 부각, 음악적 문제의식 없이 서양악기나 대중음악 협업 구성만 보이는 계획보다는 예술적 진정성과 청년세대로서의 동시대적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계획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술가로서 '자기예술'의 진솔한 고뇌가 아니라 다소 평이하고 느슨한 사업을 제시한 경우는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산상의 한계로 인하여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11건의 지원대상을 선정하였고, 경쟁률이 9대1을 넘는 치열한 심의다 보니 훌륭한 청년예술가들을 좀 더 많이 지원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명세와 인지도 순으로 청년들을 서열화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습니다. 본 심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청년예술가들이 상심하지 않고 꾸준하고도 두터운 자기 발걸음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